

박정희와 박정희 패러다임

홍덕률 대구대학교 사회학 교수

1.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

15살 되던 해인 1932년 4월,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했다.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구미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였다. 대구사범학교는 조선의 3대 명문 중 하나였고 구미보통학교 졸업생 가운데 대구사범 합격은 박정희가 처음이었다. 학교 선생님이 보장되는 사범학교 진학은 대부분의 식민지 백성에게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소위 출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제 때의 학교 선생님이란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충성스런 황국신민으로 개조해 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범학교 학비를 일제가 대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함께 입학한 90명의 조선인 학생 가운데 27명이 퇴학당했지만 박정희는 5년 과정을 무사히 졸업했다. 그는 그러나 사범학교에 취미를 느끼지 못했다. 성적도 최하위권이었다.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를 3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박정희에게 별 의미도 흥미도 없었다. 그는 1940년 3월, 만주로 갔다. 그리고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다.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였다. 나이가 많아 입학이 여의치 않았지만 박정희는 혈서로 충성을 맹세했고 뜻을 이뤘다.

2년 뒤인 1942년 3월, 박정희는 식민지 출신 졸업생 240명 가운데 수석으로 졸업했다. 만주제국 황제가 내린 금시계도 받았다. 졸업생을 대표해 답사도 했고 선서도 했다. 선서는 다음과 같았다.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름도 다카키 마사오로 바꿨다. 일본제국의 최우수 군인 다카키 마사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1942년 10월, 다카키 마사오는 다시 일제 최고의 장교 양성기관인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일제로부터 충성스런 일본 군인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은 것이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교장 나구모 주이치는 다카키 마사오를 이렇게 평했다.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

다카키 마사오는 1944년 4월, 일본인 학생과 식민지 출신 학생을 모두 합친 300여명 가운데 3등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만주군 제 8단에 배속되어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약 1년 동안 조선인 토벌에 나섰다(최상천, 「알몸 박정희」 참조).

2. 거둬진 변신, 본질은 절대권력 추구

청년 박정희의 일제 때 삶은 한마디로 매국 친일이었다. 해방된 뒤 마땅히 반민족행위자로 처벌받아야 할, 민족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은 그렇지 못했다. 친일 매국 인사들의 협박과 테러로 반민특위가 좌초하였다. 처단받기는커녕 해방 후의 정치, 군, 경찰, 행정, 교육, 언론,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권력과 기구를 장악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일본군 장교에서 해방된 조국의 국군 장교로 간단히 변신하였다. 경위는 이렇다. 먼저 그는 일제가 패망한 뒤 같이 투항한 조선인 일본 장교들과 함께 무늬만의 광복군을 만든 뒤, 1946년 5월에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다. 몇 달 뒤에는 미국이 창설한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석달 뒤 졸업하면서 남조선국방경비대 소



5·16쿠데타 직후의 박정희(「서울발, 외신종합, 김천길」)

위로 임관하였다. 반공 군대 건설에만 관심을 가졌던 미 군정청에게 일본군 장교 출신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본 천황에 충성을 맹세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 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해방 조국의 국군을 점령한 것이다. 박정희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는 그런 군대에서 승승장구하였다. 소위 임관 19개월 만인 1948년 8월에는 소령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또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군대 내 남조선노동당 최고 간부로 변신한 것이다. 실은 그 자신이 갑자기 사회주의 신봉자가 되어서가 아니었다. 항상 권력을 쫓던 박정희의 변신일 뿐이었다.

당연히 박정희의 좌익 경력은 오래 가지 않았다. 추울 때 걸친 옷이니 날씨가 더워지면 벗어던질 옷이었다. 때는 여순반란 사건이 터지고서였다. 군대에 좌익 군인 소탕 바람이 몰아쳤다. 서대문형무소에는 1천명이 넘는 좌익 군인들이 잡혀 들어왔고 박정희도 1948

년 11월 11일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좌익 장교 가운데 20여명이 처형되었다. 군대 내 남조선노동당 최고 간부였던 박정희는 당연히 무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다.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파면을 선고받았지만 어쨌든 그는 살아남았다. 비결은 오직 하나였다. 군대 내의 좌익계 정보를 모두 넘겼던 것이다. 군대 내 좌익을 완전 소탕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을 배신한 박정희의 공이었다.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뒤에 그는 군사정보를 총괄하는 육군본부 정보국의 민간인 상황실장이 되었고, 한국전쟁이 터진 뒤에는 소령으로 복귀하였다.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김중필을 위시한 정치군인들과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실은 1960년의 4·19혁명 이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연기되고 또 연기된 쿠데타였다. 4·19혁명 후 민주당정권의 무능과 사회혼란 때문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진

실과 거리가 멀었다. 박정희가 관심을 가졌고 추구했던 것은 오로지 권력이었다.

3.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는 1961년, 총과 탱크로 권력을 탈취한 뒤 18년 동안 절대 권력을 강화해 갔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3선 개헌에 이어 유신헌법을 선포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대통령할 수 있도록 했고,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까지 잡아갈 수 있도록 했다. 도전자는 물론 2인자들도 가차 없이 숙청해 갔다.

결과는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철권통치 시스템이었다. 「알몸 박정희」의 저자 최상천은 박정희 자신이 정점에 선 천황제 국가를 만들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박정희의 인생에서 관찰되는 거둬들인 변신들도 모두 그것을 위해서였다고 해석했다.

그것을 여기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으로 부르코자 한다. 18년이나 장기 집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 TK 출신 군인대통령 임기까지 합치면 30년이 넘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살아 작동하고 있다. 박정희 패러다임의 골자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반공·반북주의

먼저 반공·반북주의다. 명분 없는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걸어진 명분이기도 했고, 총칼로 권력을 탈취해 지지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던 쿠데타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기도 했다. 노동당 간부였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력을 갖고 있던 박정희로서는 미국의 까다로운 신원 조회를 통과받기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명약 중의 명약인 대북 적대주의 노선을 국시로 택했다.

뿐만 아니다. 박정희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특하면 좌익 조직사건을 만들어 냈다. 빨갱이로 몰려 숙청되고 죽기까지 한 정치인과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발목잡고 있는 구태정

치의 씨앗들도 이 때 뿌려졌다. 색깔론으로 정적을 매장해 버리는 광란의 정치 관행도 이 때 굳어졌다.

2)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그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도 파괴되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우겨댔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한 반(反)민주주의였다. 국민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물론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마저 없었다.

용기 있는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제단에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나섰다. 교수들은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권력의 주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강단에서 쫓겨날 것인가를 놓고 선택해야 했다. 학생 시위대를 몸으로 막으라는 지시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떨어야 했다. 대학은 평상시에도 정보원들로 우글거렸다.

언론도 죽었다. 언론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해바라기 언론인들이 언론계를 장악했다. 언론은 이 때부터 골병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정치도 실종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인에게는 거수기 역할만 주어졌다. 망국병 지역감정도 이 때 생겨났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3) 민중희생·정경유착 위의 성장 제일주의

그런 박정희가 지금까지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경제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냈다는 평가인 것이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약탈적 산업화였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다. 노동 3권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도 구속과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농민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농민은 빠른 산업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았다. 황폐해진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상당수는 도시빈민이 되었다. 역시 인간 이하의 주거 환경과 삶을 강요받았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희생 위

에 몇몇 재벌들은 세계적인 규모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번 줄부들은 사회를 뿌리부터 병들게 했다.

정경유착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도 박정희 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이었다.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도 실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파산으로 보아야 한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임기 말에 터졌지만 그가 져야 할 책임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청산하지 못한 것까지다. 책임의 뿌리를 캐자면 박정희와 박정희 패러다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4) 절대 권력의 폭력과 일방주의

박정희 정권이 뿌려놓은 더 큰 불행은 사회적 관계를 황폐화시킨데 있다. 먼저 폭력의 일상화다. 사회질서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각계 지도자들의 리더십조차도 폭력에 의해 지탱되는 구조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폭력에 무감각해졌다.

군대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된 것도 문제였다. 학생들도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군 장교들은 예편 후 정치권과 행정계는 물론 기업, 문화, 교육계에까지 진출했다. 관공서도 기업도 학교도 가정도 마치 군대처럼 변해갔다. 그 결과 비합리적 돌진주의가 미덕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성적 판단과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군대문화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계를 집어삼켰다. 하라면 해야 하는 일방통행식 독재체제가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고들었다. 이유도 없고 반대도 용납되지 않았다.

매 맞는 아내와 아이들, 황제 식 재벌경영, 일인 지배 정당체제, 황제 같은 언론 사주, 재단 이사장의 전횡과 비리로 몸살 앓는 사립학교 등도 모두 박정희 정권 18년에 뿌리내린 절대 권력체제와 폭력문화의 열매에 불과할 따름이다.

4. 소위 '박정희 신드롬'을 보면서

그런데도 박정희가 여전히 인기라고 한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꼽는다. 역사의식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없는 정치인

들은 박정희를 따라하느라 여념이 없다. 어떤 이들은 박정희와 키가 같다고 선전하며 박정희의 헤어스타일까지 흉내 내려고 한다. 박정희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국민 세금을 지원하려고 했다. 누구도 박정희의 친일 행적과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IMF 외환위기와 사회관계의 황폐화를 초래한 책임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니 대학생들까지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대답한다.

**박정희가 뿌려놓은
절대 권력과 굴종의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서는
밝은 미래도 없다.
폭력과 돌진주의 위에서만
작동되는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왜곡은 미래의 실패를 낳을 뿐이다. 진실을 밝히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일제 때의 친일 행적과 절대 권력을 향한 돌진, 쿠데타 후의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등은 특히 후세대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카키 마사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 국민은 21세기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박정희가 뿌려놓은 절대 권력과 굴종의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서는 밝은 미래도 없다. 폭력과 돌진주의 위에서만 작동되는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선진사회란 불가능일 뿐이다.